

혈세로 개인 스마트워치·이러폰 산 공무원들

노조 운영 매점 통해 공용물품 구매 때 사적 물품 끼워 넣어 착복 전남도 감사서 사무관리비 유용 50명 적발...6명 고발 수사 의뢰 공무원노조 "책임 깊이 통감...매점 운영권 양도 적극 검토할 것"

전남도가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직원 50명을 적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사무관리비 감사 결과에 대한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불법 지출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쇄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

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당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이 개설한 G마켓 계정을 이용해 공용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어 착복했다.

노조는 공무원들이 물품을 구입하면 매점에는 부가가치세 10%, 소득세 3%, 임차료, 인건비 등 6% 명목으로 총 19%의 수수료를 물품값에 부과했다.

100만원을 주고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매점을 통하여 119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구조여서 공무원들의 배임 의혹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은 노조 사무실과 매점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정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사과문을 내고 "이런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매점 운영권 양도를 적극 검토하고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6명은 전남경찰청에 고발 등 수사를 의뢰했다. 횡령 금액 200만원 미만 차분 대상자 중 14명은 징계 요구(중징계 10명, 경징계 4명)를, 30명은 훈계 조치하고 업무추진비나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할 품목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부정확하게 집행한 부서는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납품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는 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 구입 물품 인화 사진을 집행서류에 첨부하도록 할 계획

이다. 일상경비 취약 분야 정기 감사를 신설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 또 온라인 소매품을 통한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서 직접 구매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의 공급 횡령 및 유용의 고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횡령은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유용은 30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고발 기준 금액을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사무관리비의 사적 사용 혐의자의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관련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 229억 반환"판결

법원이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어등산리조트에게 투자비 229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형 부장판사)는 25일 (주)어등산리조트(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민간 사업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공사에 어등산리조트가 투자한 사업비 229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리조트가 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양 당사자간 작성한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에 나섰다 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리조트는 광주시와 수차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2012년 유원지 조성 후 골프장을 개장하기로 했으나 골프장만 먼저 지어졌고, 나머지 유원지에 대해 허가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것이 다름의 주 이유였다.

두차례 강제조정 끝에 이들은 지난 2016년 12

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리조트가 자체적으로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고 권리를 포기할 것 ▲어등산리조트의 투자비는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토지비를 도시공사에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조트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할 민간 사업자를 세차례 공모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만큼,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지난 2019년 12월에 지급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합의서대로 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를 기다려야만 한다면 리조트는 상당 기간 투자비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된다"며 "민간사업자 공모 및 토지비 납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의서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난 시점은 지급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테러·화재 대응 '총무훈련' 광주시 동구와 제503여단 4대대, 광주동부경찰 등 관계자들이 25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 일대에서 '2023 총무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구청 별관 건물에 드론 테러로 파괴되고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해 상황 대응 및 피해 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무죄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25일 당선무효 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서로 연락한 통화 녹취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중동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도로 달리던 제설차량 갓길 정차 화물차 들이받아 무안서 1명 사망·4명 부상

25일 오전 10시 20분께 무안군 삼합읍의 죽림분기점 인근 편도 2차로에서 5t 제설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다른 5t 화물차의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그 앞에 있던 A(27)씨가 화물차와 가드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으며, 40대 제설차량 운전자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또 화물차 내에 있던 운전기사와 화물차 주변에 서 있던 작업자 2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안경찰에 따르면 제설 차량은 목포시 소속으로, 겨울 제설 작업에 앞서 차량 및 운행 구간 점검을 위해 사고 지점 일대를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물차는 광주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교량 안전진단 작업을 하청받은 사설 업체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교량안전진단 업체가 현장에 막 도착해 아직 안전 라바콘(삼각표)과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시속 90km 안팎으로 약간 굽어진 길을 달렸다 미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사)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80대 요양병원 치매환자 2층 창문 넘어 추락 사망

80대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 2층 창문을 넘어 추락 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4일 밤 9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요양병원 2층에서 80대 여성 A씨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요양병원 내 2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곳 창문은 5cm만 열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에 앞서 A씨가 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충격하면서 20cm까지 틈을 벌린 뒤 창문 소년 보행기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넘어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홀로 일어서기 힘든 상태였으며, 복도에 설치된 CCTV에도 병실에 다른 사람이 오간 기록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가족 또한 별도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아 일반 번사 사건으로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4417	1	여주시 무선로50, 114동 1905호 [학동, 신동] 아파트	아파트	359,000,000	19층 동아파빌리움에 84.5752㎡
2022타경 4547	1	순천시 비봉길70, 103동 1층 103호 [조례동, 동] 아파트	아파트	135,000,000	미남관리비923.35 동아아파트 74.92㎡
2022타경 5069	1	여주시 여서2로39, 104동 3층 306호 [여서동, 현대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40,000,000	140,000,000
2022타경 56685	1	여주시 여서로134, 110동 6층 601호 [여서동, 현대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73,000,000	미남관리비450,000
2022타경 56746	1	순천시 조례1길60, 108동 9층 901호 [조례동, 남양향원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610,000,000	610,000,000
2022타경 57466	1	광양시 태인길1, 101동 4층 402호 [태인동, 동광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19,000,000	19,000,000
2022타경 4417	2	여주시 안산동 481-19 216.6㎡ 제외의 가축 등 29.3㎡	대	233,433,360	233,433,360
2022타경 56500	1	순천시 신흥동11길 31 단층96.56㎡ 단층일반승식48.95㎡ 부속건물 단층화장실4.20㎡ [현황합상] 제외의 단층창고 등 81.7㎡	대	479,637,400	479,637,400
2022타경 56807	1	순천시 인제동 217-3 274㎡ [일부현황도로]	대	144,484,960	144,484,960
2022타경 57138	1	순천시 매곡동 309-13 18.2㎡ [공유자유권복2/14지분전부]	대	15,146,040	15,146,040
2022타경 2923	1	순천시 낙안면 장남리 869 972㎡ [갑구순전5번공유자박종철, 박종삼, 박종일, 박종삼, 박종석각2/66지분전부, 공유자박종숙, 박정숙각1/66지분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외 부속대향농지개발원청결변경면허신청이외에 대한원청결변경필요없음]	전	1,343,148	1,343,148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2타경 2923	2	순천시 낙안면 장남리 884 536㎡ [갑구순전5번공유자박종철, 박종삼, 박종일, 박종삼, 박종석각2/66지분전부, 공유자박종숙, 박정숙각1/66지분전부]	답	2,338,800	토지지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외, 공유자우선매수권1회제한
2022타경 3810	1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67-4 109㎡ [현황일대]	대	4,075,000	일괄매각, 인접필지에서서목록2일부불합, 타인주택경계, 도로등은 공용
2022타경 4707	1	여주시 돌산읍 군내리230-9 1116㎡ [농지취득자격증명외, 최고대향농지가불법형질변경면허신청이외에 대한원청결변경필요없음]	전	14,508,000	14,508,000
2022타경 4769	1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197 99㎡ 제외의 대창창고 36㎡ [지상18㎡]	대	7,902,000	7,902,000
2022타경 4899	1	고흥군 남양면 천성리 1226-9 807㎡	답	69,578,000	69,578,000
2022타경 53433	1	여주시 돌산읍 돌림리 선363-12 16264㎡	일야	144,870,000	144,870,000
2022타경 56449	1	광양시 성황동 선45-5 2172㎡	일야	95,568,000	95,568,000
2022타경 56517	1	여주시 소호동 1167 450㎡ [공유자유권]	도로	11,610,000	11,610,000
2022타경 57701	1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선155-9 10859㎡	일야	15,745,550	15,745,550
2022타경 3810	3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67-6 46㎡	도로	936,000	936,000
2022타경 3810	4	동소 35-2 17㎡ [물건번호4:감정평가액은 제외외의물소유권행사로제한받지않음]	도로	1,107,450	1,107,450
2022타경 5861	1	선정항:삼선면 거문항 선박종류외명칭:동력선 일종소터3호 여선번호:1811012-64613 01 선장:FRP 총톤수:9.77톤 기관종류외수:선박용디젤기관 891.000마력 1대 추진기종류외수: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8년 11월 15일 [의정장포함, 어렵허가권][종류:연안복합어업, 어렵허가기간2019.01.01~2023.12.31]포함, 여선검사증서상용허가기간2018.11.28~2023.11.27, 낙시여선안전성검사유효기간2022.12.31~2023.12.30	선박	437,943,000	437,943,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3타경 429	1	선정항:고흥군 금산면 선박종류외명칭:동력선 일종소터 여선번호:1202009-6467703 선장:에프.알.피, 총톤수:1.10톤 기관종류외수:가솔린선외기관 115.000마력 1대 추진기종류외수:나선일체식추진기 1기 진수년월일:2011년 12월 15일 [감정평가외허가권, 추진기는 115마력으로정상작동여부확인 불가상태이므로매수신청시확인요]	선박	8,274,000	8,274,000

● 광고의 부동산의 명목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1.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본공고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김광현